

1-12-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13-18
말씀 제목: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세우시는 교회에게 주신 권세에 대하여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룸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엡 1:20-23)

하나님께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혼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들이 구원받아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상에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끊임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며 때로는 그들의 몸을 죽이기도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몸으로 죄를 짓게 하여 지옥으로 끌어당기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롬 14:17)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마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롬 8:33-39)

사도 바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그의 지식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엡 3:6-7)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비록 지극히 작은 땅인 지구 안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소망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엡 3:16-19)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운 때에, 임박한 휴거의 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휴거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들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혼이 구원받아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고 그들 몸 안에 내주하는 구원받은 혼과 거듭난 영을 보시고 그들을 공중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이미 그들의 영과 혼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이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비록 영과 혼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의 몸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엡 6:10-19)

아멘! 할렐루야!